뚝심있는 30년 '이어가게' 8개소 추가

서문김밥·청운서림 등 총 34곳
업체당 500만원 시설개선비 지원
市 "전통 보존·유지토록 도울 것"

인천지역에서 뚝심 있게 30년 이상의 전통을 지켜온 인천의 이어가게 8곳이 추가로 선정, 총 34곳으로 늘어났다.

인천시는 최근 이어가게 위원회를 열고 금풍양조㈜, 대명사, 만물상회, 서문김밥, ㈜섬고기, 청운서림, 동국광고, 미도방만두 등 오랜 시간 전통을 이어오고 특색 있는 가게 8곳을 '이어가게'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어가게는 '대대로 물려받아서 가게가 계속 이어가기를 바란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시민 명칭 공모전을 통해 지어진 이름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인천의 노포나 오랜 기간 운영 중인 가게들의 발굴·지원을 위해 해마다 이어가게를 선정하고 있다. 첫해 8곳을 비롯해 이번까지 모두 34곳의 이어가게를 선정했다.

특히 시는 올해 제4권역인 강화군·옹진군·서구 지역에서 30년 이상 전통을 유지하고 대를 이어오거나 업종 변경 없이 영업을 지속한 특색 있는 가게들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았다. 위원회는 총 21곳 중 역사성, 성장성, 지역성, 희소성, 차별성,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8곳을 선정했다.

금풍양조㈜는 탁주·약주 제조업체이며 대명사는 세탁업, 만물상회는 잡화 소매업, 서문김밥은 한식 음식점, ㈜섬고기는 식육포장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 또 청운서림은 책(서적) 도매업, 동국광고는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미도방만두는 분식집이다.

업종별로는 음식업 2곳, 서비스업 1곳, 제조업 2곳, 도·소매업 3곳이다. 지역별로는 강화군 6곳, 서구 2곳이다.

시는 이번에 선정한 이어가게 업체들을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영상 제작 등의 홍보를 지원한다. 또 이어가게가 전통적 분위기를 훼손하지 않고 시설 환경을 정비할 수 있도록 업체당 500만원의 시설환경개선비도 지원한다. 시는 이 밖에도 이어가게 인증 현판을 제작, 오는 9월 중 가게에 걸 예정이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전통에 대한 가치를 헤아리고 이를 뚝심 있게 보전하고 있는 이어가게가 앞으로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전통과 문화를 이어온 지역 상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민우기자

청렴한 서구를 위한 뜻깊은 소통간담회

신규 공직자 40여명 대상
APEC 유치 적극행정 다짐도

인천 서구가 최근 경서동 녹청자박물관에서 신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청렴 서구를 빚다' 소통간담회를 했다고 17일 밝혔다.

신규 공직자 40여명을 대상으로 도자기 판에 스스로 생각한 청렴 문구나 공직생활의 좌우명을 새기고 구청장과 공직생활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자리다. 구가 올해 처음 마련했다.

강범석 구청장은 "지금은 막내 입장으로 배우는 시기이지만, 곧 자신을 보고 따라하는 후배 공직자가 생길 것"이라며 "후배가 따를 수 있는 선배 역할을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공직생활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세대 간 자라고 겪은 환경이 다르다"며 "기성 공직자들도 신규 공직자들의 다름을 인정하고, 후배들도 선배들을 이해하는 풍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인천고등·해사전문법원의 인천 유치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다짐도 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이후 공직에 입문한 직원을 위한 행사로 열려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한 신규 공무원은 "그동안 코로나19 영향으로 직원 간 교류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며 "공직에 입문하며 가졌던 신념을 되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강 구청장은 "원하면 언제든지 시간을 내 대화하는 시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는 이날 행사에 앞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했다.

이병기기자

시교육청,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성과보고회 대거 입상

인천지역 직업계고가 학점제 운영 성과보고회에서 대거 입상하는 성과를 냈다.

1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지역 직업계고는 최근 세종시에서 열린 '2023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성과보고회'에서 '우수학교 선정'에 4곳, '학점제 수기공모전 학생 부문'에서 11명, '교원 부문'에 2명이 입상했다.

우수학교는 전국 직업계고 선도학교 573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운영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심사해 선발했다.

수기공모전에서는 한국주얼리고등학교 박다은 학생이 '고교학점제는 내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라는 주제의 수기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행복한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과 개편, 실험·실습실 환경 개선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서 학점제를 우선 적용하고 있으며, 29곳 직업계고에서 학점제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홍승주기자

내 손안의 뉴스
경기일보 APP

오늘은 내가 1일 의원! 17일 오후 제317회 인천시의회 청소년 의정 아카데미에 참가한 인천 서구 간재울중학교 학생자치회 학생들이 본회의장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제공

길병원, 원격 협진 플랫폼 '글로싸인' 가동

가천대 길병원은 17일 원격 협진 플랫폼의 전자서명 서비스를 위해 '글로싸인'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가천대 길병원 자회사인 ㈜가천헬스케어텍은 이 사업을 위해 원격협진 온라인 플랫폼을 자체 개발했다.

글로싸인 전자서명은 온라인 기반의 협진 상황에서 개인정보 데이터의 보안성과 안정성 보장을 위한 문서 위변조 차단 등의 기능을 한다.

길병원은 글로싸인 전자서명 도입으로 앞으로 감사추적 인증서와 같은 중요 정보에 대한 로그 기록 등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진료 의뢰와 예약, 결과 조회 등의 업무를 사용자 동의를 거쳐 간편하게 의료진에 제공, 의료진은 문서 작업 등의 시간을 절약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다. 민감한 개인정보도 완벽하게 보호한다.

김우경 병원장은 "원격 협진 플랫폼을 통해 환자의 안전과 의료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보안성 보장이 큰 전자서명이 의료 산업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주연기자

연수구, 불법주차 근절 주민감시단 꾸려

옥련·동춘동 현장 단속 강화

인천 연수구가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감시단을 출범,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최근 동춘·옥련동 주민 14명으로 구성한 주민감시단과 온 동네 소통투어 '소풍II'를 했다. 구는 소통투어에서 주민감시단의 취지를 밝히고, 말소 차량에 대한 단속 방안을 논의했다.

주민감시단은 번호판 없는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거나 불법 주정차를 발견하면 즉시 경찰·구청에 신고할 계획이다. 또 주민감시단은 이러한 불법행위가 잦은 지역을 수시로 단속한다.

옥련·동춘동에는 중고차 매매단지가 있어 도로변·골목 등에 불법 주정차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구는 주민들이 운전을 할 때 교통흐름 방해와 안전사고를 우려,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구는 능허대로 일대에 단속 인력을 늘려 도로변 무단 주차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말소차량의 불법운행과 무단점유 단속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구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연계해 주민감시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재호 구청장은 "주민들이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방안을 강화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일기자